

15억 넘는 집 대출, 4억으로 조인다

(25억 초과는 2억)

李정부,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규제 지역·토허제 동시에 묶어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 금지

정부가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사·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데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놔다. 대출 한도는 줄어든 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원천 금지된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세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커 전세 대란도 우려된다.

정부 관계 부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규제 지역(조정 대상 지역·투기 과열 지구)을 16일부터 서울 25구 전체와 과천, 광명, 성남(수정·분당·중원), 의왕, 하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고, 세금·청약·재건축·재개발

등에 걸쳐 10가지 넘는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총 231만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지역들은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이 지역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하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197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풍선 효과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지역과 별개로 수도권 전체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6억원이던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

어든다. ‘똥똥한 한 채’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시장에서 ‘초강력 규제’란 반응이 나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지실장은 “모든 시장 자금이 부동산에 매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선 중개업소와 은행 창구에는 규제 시행 전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 냉각 효과는 있겠지만 전세 매물이 급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정순우 기자 기사 A3·B1면



철창에 둘러싸인 범죄 조직 본거지 15일 오후 찾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원구 단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본거지 중 하나로 추정된다. 건물을 둘러싸고 높다란 철창이 설치돼 있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조직원들이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차 부품 거래하자” 캄보디아서 온 사업제안 역시 ‘덫’

범죄단지 가둔 뒤 “통장 만들라”
전기 고문 당해 양쪽 각막 손상

국경서 한국인 여성 숨진 채 발견

“사업 광고를 보고 갔는데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두드러 맞고 고문당한 끝에 겨우 돌아왔지만 성한 곳이 없습니다.”
경남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20대 남성 A씨는 작년 하반기 사업차 캄보디아를 찾았다. 캄보디아 부품 업체에서

“부품을 값싸게 처분하려고 하니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편도 비행기 비용도 대주겠다고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중국인 1명과 캄보디아인 1명이 마중을 나왔다. 이들은 호텔로 가져와 검은색 승합차에 타자마자 표정이 바뀌었다. 중국인은 A씨 허벅지에 총구를 겨누며 “입 다물고 가만 있으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었다. 부품 업체 사이트는 위조된 사이트였다. 이들은 A씨를 범죄

단지에 가둔 뒤 “통장을 개설하라”고 했다. A씨가 말을 듣지 않자며 전기 충격기로 고문도 했다. A씨는 10여 일 만에 현지 교민들에게 구조됐다. 그러나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남았고, 양쪽 눈 각막이 손상돼 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은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 취업’ ‘고소득 일자리’ 등을 내걸고 한국 MZ 세대를 유인하면서 한국 청년 피해가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캄보디아 보이스피

싱 조직이 하위 사업 광고까지 내며 한국 사업가까지 납치·감금·고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인 명의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쓰기 위해서다.

한편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의 시신은 현지에서 부검을 마친 뒤 유족에게 인도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A5면에 계속
프놈펜=이기우 기자, 고유한·강지은 기자

5개 그룹 총수, 트럼프와 골프 美재무 “한국과 협상 끝나가”

삼성·SK·현대차·LG·한화 방미
주말쯤 마라라고 리조트서 회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국내 5개 그룹 총수가 이번 주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플로리다주(州)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동한다.

미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19일 휴원금 관련 행사 참석차 자신의 별장인 마라라고를 찾을 예정이다. 우리 기업 총수들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 형식으로 마라라고 리조트에 모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치며 친목을 다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인들이 또다시 지원 사격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다. (협상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5개 그룹 총수와 별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기 위해 16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전 사실상 마지막 각료급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스콧 베스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거의 끝나 간다”며 “세부 사항이 관건이지만 현재 조율 중”이라고 했다. 베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정한국·이정구·김태준 기자 A4면에 계속

알립니다

美 메트로폴리탄의 리먼 컬렉션 한국 온다

내달 14일 중앙박물관 특별展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을 대표하는 로버트 리먼 컬렉션이 한국에 옵니다. 조선일보사는 국립중앙박물관



박성원 기자

관과 공동 주최로 오는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를 경영했던 금융가인 리먼의 컬렉션 중 프랑스 근현대 명화를 국내 최초로 소개합니다. 르누아르, 고흐, 고갱 등 인상주의 거장들의 회화, 드로잉 등 총 81점을 선보입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인상주의 최고 걸작들을 만날 기회입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입장권을 30% 할인 판매하는 ‘얼리버드(사전 구매)’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시명: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
▲일정: 2025년 11월 14일(금)~2026년 3월 15일(일)
▲장소: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성인 1만9000원 (얼리버드 입장권: 1만3300원)
▲주최: 조선일보사·국립중앙박물관·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주관: 씨씨오씨
▲운영: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의: (02)2077-9280 기사 A16면

八面鋒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막는 與, “아니면 말고”식 정쟁 응할 수 없다고. 대법원장 공적 땀 아랑곳하지 않으니.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친 돈 빼돌릴 ‘대포 통장’ 노리고 한국인 납치. 이들에게 사람은 현금 인출기.

○ 하마스, 이스라엘軍 떠난 가자지구서 ‘부역자’ 공개 총살. 트럼프가 자랑한 ‘중동 평화’, 진짜 오긴 올까.

자연이 빛을 걸작 위에서, 오직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라운드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선택”

(구. 트론CC)

평창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골프 무기명 회원권 특별분양

프리미엄을 넘어, 품격의 기준이 되다
“회원이 되는 순간, 가치가 달라집니다”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골프 무기명 (10구좌 한정모집)

회원구성: 정회원 1인 / 무기명 4인
그 린 피: 정회원 5만원(주중/주말)
무기명 4인 주중 5만원 / 주말 7만원
횟수 (월): 주중 8회 / 주말 4회

입회기간: 5년
숙 박: 년 60박

시설 개요
인터컨티넨탈 호텔 | 홀리데이인 호텔 및 리조트
회원제 27홀 | 대중제 18홀 | 오션700 | 스키700

계좌안내 | 140-014-810958 신한은행 (케이에이치 강원개발 주식회사)
문의번호
033-339-0640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25351)